

하워드 호주연방 총리 내외 주최 공식오찬 답사

호주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사당에서 즐거운 점심을 함께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 하워드 총리 각하, 폴 칼버트 상원의장, 데이빗 호켓 하원의장, 케빈 러드 노동당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호주를 말하면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국민을 생각합니다. 1만 8천여 명이 참전하여 339명이 목숨을 바친 그 역사를 한국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살고 싶은 두 나라를 말하라고 하면 호주를 말합니다. 가장 가 보고 싶은 나라 다섯 개를 말하라고 하면 반드시 호주가 들어갑니다.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 세 나라 안에 호주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대로 하고 있지 않아 우리 통역이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출발할 때 영하 6도였습니다. 서울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호주산 LNG가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를 따뜻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철

광석과 유연탄을 보내 주지 않으면 철강을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많은 경제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없으면 한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만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6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워드 총리에게 그것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시장이 결정한 문제라서 총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치시는 것은 저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은 배를 잘 만드니까 최소한 한국으로 석탄을 싣고 갈 때, LNG 싣고 갈 때 한국 배로 꼭 싣고 가게 그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여러 나라를 갔을 때, 한국산 자동차를 봤을 때, 한국산 휴대전화를 봤을 때도 저는 그 나라에 무한한 친근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다시 오는데 호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더라도 무역 적자 60억 달러 중 10억 달러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학생 2만 6천 명이 매년 호주 학교에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매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본전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때 여러분이 와서 돈 좀 쓰고 가시고, 2012년 여수박람회 때에도 오셔서 돈 좀 쓰고 가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박람회에 관해서 호주 정부에서 한국을 지지해 주셔야 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IOC에서 지지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호주 IOC 위원을 친구로 두신 분이 있으면 이번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한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DMB와 와이브로도 꼭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호주에 왔는데, 호주 정부와 의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또 따뜻하게 연설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을 바쳐서 군사 독재체제를 끝내고, 그리고 그 후 약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의 합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민주주의,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로 그 민주주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큰 부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모든 정치인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호주의 민주주의를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지불하더라도 당장 수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더불어 UN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제재에 소극적이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가에 소극적이냐는 질

문을 국제사회에서 듣고 있는데, 이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UN 안보리 결의가 있기 이전부터 UN 안보리 결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보리가 금지한 일체의 거래를 그 이전부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외에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매년 지원하고 있던 비료와 쌀, 미국 달러로 3억 6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재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제재보다 더 많습니다.

원칙을 존중하고 또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상당 부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이웃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확산 방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핵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확산 방지도 중요하고 핵폐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바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가장 잘 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잘못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나라가 한국이고, 잘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이해관계가 절실한 한국의 의견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정말 잘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APEC 계기에 호주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호

주를 방문한 것은 우리 국민이 호주를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호주에는 우리 동포들이 1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따뜻한 친구로 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